INVENTION 365

신체장애자 언어

캐나다에서태어난소녀라첼은여섯살때놀이를하다떠오른첫아이디어를어느경시대회에제출하고, 여덟살때천문과혹성에흥미를갖게되었다. 11살때는컴퓨터제조한신체장애자를위한언어를생각해냈다.

그녀의가족중에신체장애자는없었지만, 그들이겪는괴로움은항상라첼을괴롭혀왔다고한다. 그래서라첼은컴퓨터에특별한키보드를설치하여적절한영어단어가스크린이나출력정보지시테이프에나타나도록만들었다. 뿐만아니라라첼은영어에서프랑스어에까지이컴퓨터시스템을적용시켰다. 라첼은항상 자기보다불행한사람들, 즉외로운사람들을방문하고젊은학생들에게도기꺼이도움을줬다고한다. 그녀의이러한관심이발명을하게했다.

365

실내화

실내화는할머니의손자사랑이낳은발명품이다. 60대초반의할머니마츠이여사는어느추운겨울날, 아들내외가외출하자두 살난손자와큰집을지키고있었다. 이제막걸음마를배운손자는온 집안을돌아다니다가, 양말신은발이미끄러워금방넘어질듯했다. 그래서양말을벗겼더니발이시린듯 발가락을움츠렸다.

그래서마츠이여사는복도에서미끌리지않는양말을생각해내고, 손자의양말바닥에고무를둥글게잘라붙여보았다.

미끄러지지않을뿐 아니라여간따뜻한것이아니었다. 마츠이여사는손자가즐겁게뛰는것을보고아들내외에게도만들어주었다. 양말윗부분을잘라내쉽게신고벗을수있음을안아들은곧특허를냈다. 곧실내화는날개돋친듯팔려나갔다.

365

실리콘

실리콘은수정등암석의주성분원소인규소로, 규소수지라고일컫는다. 즉유기물이면서분자속에는무기물에가까운규소가 들어있는것으로써, 인간이발명한우수한화합물로플라스틱의일종이다.

대개의플라스틱, 고무, 도료, 기름등은모두다탄소와수소의화합물이며그탄소의일부를규소로바꾸어넣은것이실리콘이다. 따라서그 종류에도여러가지가있다. 대체로물이나열에강하고, 또화학적으로도튼튼하다. 상당부분에사용되고있는데, 안경이나자동차의프런트, 유리의흐려짐방지, 우산이나 레인코트의방수재, 도료에이용하면내화도료가되고, 그리스나윤활유를만들면열에강하고도안전한윤활제로된다. 콘크리트에발라서방수벽이나기둥을만드는데이용한다.